

'아카이브'는 사진을 비롯한 객관적 자료가 축적된 저장소 혹은 기록 보존된 자료 자체를 일컫는다. 이때 아카이브의 핵심은 자료의 '객관성'과 시간의 '축적'양자에 있을 것이다. 백승우는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통해 객관성이라는 사진의 매체적 속성이 가진 절대적 지위와 축적된 이미지를 바라보는 우리 시각의 관습적 특성에 의문을 던지고자 한다. 다시 말해 그는 아카이브의 예술적 가치에 대해 반문하고자 아카이브를 이용하고 있다.

<아카이브 프로젝트>의 사진들 대부분은 작동이 멈춘 공장 안의 기계 설비나 (재)건설 중인 폐허의 광경과 같이 사람의 흔적이 사라진 특정한 공간에 대한 객관적 기록물로서, 특정한 기관이나 개인이 오랫동안 보관해온 아카이브의 사진들을 일정한 규칙과 기준에 따라 작가가 재분류 해 놓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상 이 사진들은 하나의 아카이브에서 선택된 객관적 기록물들이 아니다. 그것들은 사진을 찍은 행위자, 시간, 공간이 모두 다른 사진들로 혼재된 작가의 새로운 아카이브에서 작가가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 새롭게 탄생시킨 창작물이다. 작가가 구축한 아카이브에는 리노베이션 중인 미국의 어느 공장과 채석장의 사진, 우리나라 최초의 공장인 경성방직의 사진들처럼 시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기존 아카이브 사진과, 최근 재건축을 앞둔 공공 기관과 특정 회사 공장의 변화 과정을 찍은 작가의 개인 프로젝트 사진, 그리고 이 작업을 위해 작가가 새롭게 찍은 사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작가는 이렇게 출처가 각기 다른 이미지들을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 색을 바꾸고 프레임을 변형해 마치 기존의 한 아카이브에서 비롯된 사진들처럼 보이도록 재구성하거나 그 중 하나로 보이도록 하였다. 즉 공간의 쓰임이나 구도, 혹은 막연히 느낌이 비슷한 동류(同類)의 사진들끼리 나란히 배열하거나 전혀 관계없는 사진들을 잘라 한 장의 사진으로 합체함으로써 보는 사람이 이 사진들을 자연스럽게 실제 기록된 이미지로 받아들일게 한 것이다. 작가가 이음새의 솔기를 의도적으로 허술하게 드러내고 보정된 색과 톤을 정확히 일치시키지 않아도, 객관적 현실을 기록하리라는 사진의 본성에 대한 믿음과 그간 회화와 사진의 역사에서 수많은 이미지들을 보아온 축적된 관례적 습성에 따라 관객들은 그것들을 동류의 이미지 혹은 하나의 이미지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카이브 프로젝트>는 이러한 사진의 객관적 속성과 시각의 관습적 특성으로 인해 카메라를 통해 바라보는 장면이 외견상 특별히 독창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예들러 말하고 있다. 여전히 누군가는 더 새로운 것을 더 아름답고 독특하게 담아내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으로 셔터를 누르지만, 아주 넓은 시공간의 스펙트럼에서 그 사진들을 한 데 모아놓고 보면 그것들은 모두 유사한 범주로 분류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누가 찍어도 똑같다니, 이보다 더 사진가의 '작가적' 위치를 박탈하는 말이 또 있을까. 이는 언뜻 사진에 대한 부정으로 비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사진 자체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사진의 독창성과 가능성을 단지 표면적인 형상에서 찾는 모더니즘적 시각에 대한 부정이며, 사진가의 작가적 행위를 단지 촬영에만 국한시키는 모더니즘 사진의 '작가주의'에 대한 반감의 표현인 것이다.